

무안군, 금연지도원 위촉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원활한 직무 수행·전문성 강화 위해 금연 업무 전반 교육 1년 동안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 점검 등 수행

무안군은 지난 9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군은 신규 위촉된 금연지도원에게 위촉장 수여와 함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연 환경 조성을 포함한 관련법과 업무 활동 범위 등 금연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 이해도를 높였다. 금연지도원은 1년 동안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 단속 지원 △금연구역 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3개조 6명으로 감시·지도 반을 편성해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점검을 실시한다. 금연지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구역 지도·점검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사회금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금연지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무안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3월 중순부터 10만원...행정복지센터 접수

목포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민선8기 공약 중 하나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해 11월 이행했고, 지난 2월 관련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오는 3월 중순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 체류중인 초등학교 최초입학자이며,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부모나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3월 중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축하금은 자격 확인 후 지역화폐인 목포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입학축하금이 신입생 가정의 교육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인재양성과 미래 꿈나무를 위한 교육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추진

주택 처리 210동·비주택 40동·취약계층 지붕개량 5동 대상

영광군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예방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9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로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지붕 또는 벽체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21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4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5동이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원, 비주택은 1동당 최대 200㎡ 이하,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천만 원 내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초과 비용은 신청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자는 건축물 소유자로, 임차인일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건축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과에서 3월 31일까지 접수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환경과(☎061-350-5332)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라며 노후된 슬레이트를 지속적으로 철거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농사 시작하세요”

신안군은 2023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14개 읍·면 농업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969년 동계농민교육으로 시작하여 53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육으로, 영농계획을 수립, 지난해 영농상 애로사항 해결, 달라지는 농업정책 홍보 및 주요 품목별 핵심기술 보급을 위한 것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2023년 농업 동향 및 전망, 수도작·고추·마늘·양파·대파·시금치 작목별 핵심 재배기술과 국정시책 및 농업정책 홍보 등 다양한 농사정보 내용을 전달한다. 박우량 군수는 “농업인이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소득 창출로 연계 될 수 있는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다양한 교육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함평군, 영농철 대비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

60개 마을 대상...농업인 영농 편의 도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운영한다. 함평군은 “농기계 수리 여건이 열악한 관내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농기계 수리·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농기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수리반을 운영해 농업인 영농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 등 안전교육과 함께 농업인 상담소를 병행 운영해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수리반 운영을 통해 농업인들이 적기에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평준기자

영암군-학산면 천해마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협약

영암군과 학산면 천해마을(대표 이원일)은 9일 영암군청에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에 학산면 천해마을이 최종 선정돼 농업환경진단과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1년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개소 당 5년간 6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주민 주도로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민활동과 마을주민 대상 교육·컨설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승희 군수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우리군의 청정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건강한 농업생산 환경이 복원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데 있어 다각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 온실가스를 없애고
- 미세먼지는 줄이고
- 기후변화까지 막는
-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